

# 고궁/역사유적지 기반 인사이트

분석 방식	주요 내용
재방문 의향	village, mask, traditional, river 등 체험형 키워드 중심으로 높음
감성 점수	temple, beautiful 중심으로 감성 점수는 높으나 재방문 유도력 낮음
인사이트	감성 중심 콘텐츠와 체험형 콘텐츠의 결합 설계 필요

## 자연경관/전통문화체험 기반 인사이트

분석 방식	주요 내용
재방문 의향	nami, island, winter 등은 감성 낮아도 재방문 점수 높음
감성 점수	beautiful, view, temple 등은 감성 높으나 재방문 유도성 낮음
인사이트	계절별 남이섬 체험 콘텐츠 중심으로 반복 방문 유도 콘텐츠 설계 필요

## 박물관 인사이트

분석 방식	주요 내용
재방문 의향	museum, history, exhibit 등은 중심 키워드이나 재방문 의향과 감성 점수 낮음
감성 점수	excellent, great 등 감성 점수는 높지만 재방문 의향과 연결 x
인사이트	정보 중심 콘텐츠나 감성 콘텐츠는 재방문 의향이 높지 않음. 참여형 요소의 부재

→ 이 인사이트를 통하여 감성 콘텐츠와 체험 콘텐츠의 연계가 중요해 보임.

하지만 지금까지의 패스권들은 단순 입장권 중심이거나, 특정 지역 중심의 패스권임.

### ▶ 문제점 제시

#### 1. 국가 문화 유산 방문 캠페인(스탬프 참여형)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s to start your Korean Heritage Passport Tour in Korea.

 [https://www.kh.or.kr/cms/content/view/1370?utm\\_source](https://www.kh.or.kr/cms/content/view/1370?utm_source)

→ 문제점 : 재방문 의향이 유도력이 낮게 나왔던 감상 중심의 루트 연결 및  
그냥 입장권(스탬프가 참여..?)

## 2. K-Royal Palaces PASS

서울 5대 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및 종묘를 무제한 입장할 수 있는 패스

[https://english.visitkorea.or.kr/svc/contents/contentsView.do?vcontsId=194441&utm\\_source](https://english.visitkorea.or.kr/svc/contents/contentsView.do?vcontsId=194441&utm_source)

→ 문제점 : 재방문 의향이 유도력이 낮게 나왔던 감상 중심의 패스 및 그냥 입장권

## 3. Discover Seoul Pass

<https://www.discoverseoulpass.com/app/main>

서울 내 주요 명소 100여 곳을 묶은 패스로 교통 및 입장 혜택 제공

→ 문제점 : 서울 내에서만 유효. 장거리 고소비층 국가의 재방문과 체류일수 확대를 위한 지방 분 산 필요

## 4. KR Pass

<https://www.korail.com/global/eng/passengerGuide/ticketTypes/korailpass>

외국인 대상 철도 여정 중심의 패스

→ 문제점 : 자신이 선택적으로 갈 곳을 골라야하는 번거로움 + 지방으로서의 연계 혜택 부족

## 패스 상품 제안

: 고궁/역사유적지"를 중심축으로 삼아,

박물관 – 전통문화체험 – 자연경관감상 – 고궁/역사유적지를 하나의 연계된 동선으로 통합

- 먼저 강원도에서 경상권까지 먼데 왜 이걸 잇는 패스가 괜찮을까?

→ 장거리 방한객의 1인당 평균 지출은 아시아권 대비 1.5~2배 수준, 체류기간도 긴편으로 느린 여정이지만 깊은 체험을 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타겟

## [전통 힐링 패스]

목표: 장거리 고소비층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보 → 감성 → 참여 → 자연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복합 연계 콘텐츠를 하나의 패스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방문 유도 및 지역 간 분산 유도

## [상세 내용]

항목	내용
패스 명칭	K-감성문화 패스 (K-Emotion Heritage Pass)

항목	내용
수령 장소	경주역, 용산역, 서울역 등 주요 KTX/SRT 역
주요 방문 지역	경주(박물관, 불국사), 안동(하회마을), 강원권(설악산 또는 남이섬)
포함 콘텐츠	관광지 입장권, 전통체험 이용권, 교통이용권, 지역별 스탬프 미션 등
교통 연계	KTX/SRT 노선 기반 + 지역 셔틀/버스 + 티머니 연동
유효 기간	10일권 (지역 간 이동 시간 고려 및 타겟층의 개별 여행이 뚜렷함 고려)

### [기대 효과]

- 재방문 의향 제고: 감성 만족과 체험 콘텐츠 통합으로 반복 방문 유도
- 지방 관광 활성화: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경북·강원 지역으로의 분산 유도 및 단절된 지역 간 관광 소비 흐름 연결
- 교통 연계 기반 정책 연동 가능: 철도·버스 인프라 활용으로 효율적 실행 가능
- 콘텐츠 기획 방향성 확보: 계절, 장소, 서사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구성이 가능

### [정책제안]

#### 강원-경북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동 인프라 개선

##### (1) 관광 전용 셔틀버스 시범 도입

- 강릉역 ↔ 경주역, 남이섬 ↔ 안동 간 주 2~3회 운행
- 공공-민간 협업: 강원도/경상북도 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주관
- 연계 패스권 구매자에 한해 할인

##### (2) 티머니 기반 통합교통권 연계

- 패스권에 KTX+시외버스 연계 사용 가능한 교통 기능 포함
- 스마트카드 혹은 QR 티켓 형태로 구현
- 관광지 입장권 + 교통권 일체형 구조